



## 학회소식

###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변호사)와 함께 지난 7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임시의정원 100주년의 헌정사적 의미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국가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임시의정원이 갖는 역사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후, 세 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영록 교수(조선대)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제헌 국회의 관계 : 국가적 연속성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 : 근대 의회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전중익 교수(서울대)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지위와 역할

: 상해시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 행정법학회 · 한국공법학회 등 관련 8개 학회

행정법 이론·실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지난 7월 3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2019년 행정법학자 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박정훈 교수),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 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이현수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희곤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명예교수),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교수) 등 행정법 관련 학회 8곳이 참여했다. 이날 박정훈(사법연수원 제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행정법'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박 교수는 '헌법 전문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헌법의 규범적 전

제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인의 결단'이라며 "일제시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 상하이와 충칭에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규범적 사실로서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민법·형법과 달리 일제의 법을 계승한 것이 아닌,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민주행정법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9 제8회 한국형사학대회

지난 2019. 6. 15.(토) 14:00-18:00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디어와 인권, 그리고 형사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19 제8회 한국형사학대회(한국피

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형사재판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피고인의 인격권 보호와 판결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 김정현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의사실공표의 허용한계에 관한 형법적 고찰 : 김봉수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언론의 범죄보도와 재판의 공정성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신상털기)에 관한 시놉티콘과 형법적 결단: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동 정

### 성낙인 前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등 전국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미래를 활기차게 견인하는 (재)파안장학문화재단(이사장 명위진)이 12일 명 이사장의 고향인 충남 청양에서 뜻깊은 명사초청 특별행사를 가졌다. 파안장학문화재단은 이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으로 초청해 '미래 한국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안목을 넓혔다. 한국의 대표 헌법학자이기도 한 성낙인 전총장은 "세계적으로 이미 보

편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그동안의 산업혁명을 되짚어보고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강연을 시작해 '우리 한국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기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라며 "비록 조선시대에 진행된 세계적 1차, 2차 산업혁명에서는 소외됐지만 3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